

(국제)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네트워크 이론과 방법론

김 상 배
서울대학교

- o 문제의식의 배경: 국제정치이론의 한계
 - 1970년대 이래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국제정치학 분야의 오랜 고민의 연속선상에서
 - 상호의존론, 국민국가의 쇠퇴, 지구화와 정보화 및 민주화, 글로벌 거버넌스, 21세기 제국론, 지구 시민사회, 탈근대론 등
 - 현실의 변화 vs. 이론적 대응 -->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 - 현실주의, 자유주의, 구성주의 등
 - 기술·정보·소통의 세계정치 분야의 부상: 국제개발협력, 국제기구, 공공외교 등
 - 전통적인 부국강병의 게임이 벌어지는 분야에서도...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,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초국적 인권 네트워크, 천안함 사건과 2008년 촛불집회,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건 등의 사례
- o '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'의 도전?
 - 또 하나의 유행?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?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잡계 패러다임의 부분집합 - 국제정치학은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의 지각생!
 - 글로벌 차원 연구의 현주소
 - 구체적으로 '네트워크'의 논의만 보면 최근 2-3년 동안 해외 학계의 관심 급증. 그러나 아직 시론(試論)적 작업들이 출판되고 있는 실정
 - Grewal, 2008; Kahler, ed. 2009; Hafner-Burton, Kahler and Montgomery. 2009(IO 논문); Maoz, 2010
 - 그러나 여전히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보다는 각 분야별로 단편적인 사례연구 차원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단계
 - 국내 학계에서는 적어도 7-8년의 역사 -->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면 '복합'과 '네트워크'에 대한 논의는 약 20년의 역사(예: 탈근대 지구정치학)
 - 네트워크 지식국가, 동아시아 네트워크, 동아시아 지식질서, 지식네트워크, 네트워크 권력, 네트워크 세계정치 등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음
 - 최근 1-2년은 개념적-유추적 작업으로부터 이론적-분석적 작업으로의 전환기 --> 여전히 담론의 전파와 확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
 - SSK 프로젝트 "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 세계정치"가 계기
 - 네트워크 세계정치 사이트<<http://networkpolitics.ne.kr/>>
 -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세계정치(김상배 교수의 홈페이지)<<http://www.sangkim.net/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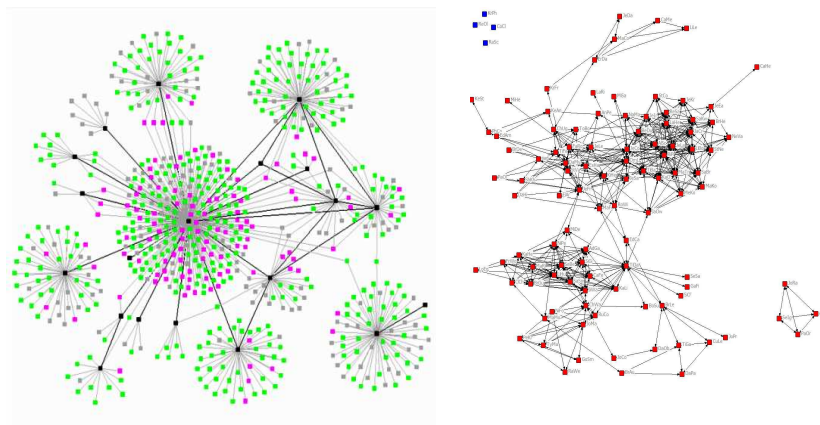
<그림-1> 지적 작업의 흔적들



o ‘네트워크’라는 안경?

-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‘네트워크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?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트워크가 없었던 적은 없다.
- 지난 십여 년 동안 수학, 물리학, 컴퓨터 과학, 생물학, 사회학의 연구 성과 - 네트워크의 물리적-사회적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밝히는 연구들의 등장
 - 기술 네트워크, 사람들의 네트워크, 소셜 네트워크 등
- ‘단순 네트워크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- ‘복합 네트워크’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탐구 - 다양한 개념적-이론적-방법론적 성과들의 원용
-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[복합]네트워크란 무엇인가? 행위자? 구조? 과정? 이 세 가지의 ‘복합’?
- 복합 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 - 인터넷, SNS

<그림-2> 소셜 네트워크, 페이스북 네트워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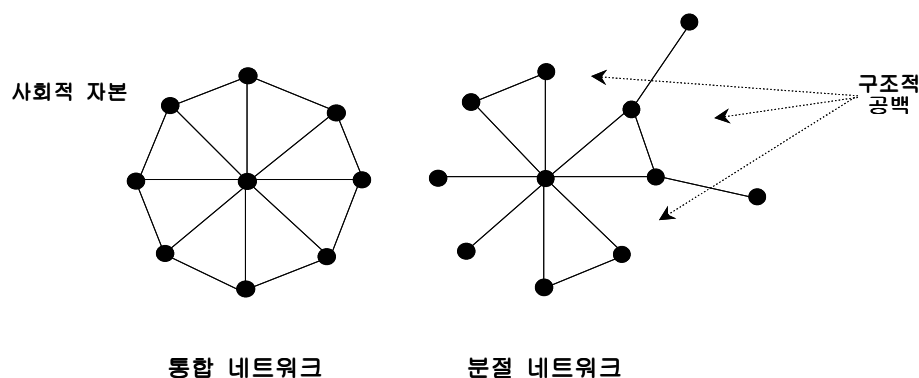


- o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는 유용성 - 무엇이 새로운가?
 - a) 이론적 측면 - 국제정치이론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‘행위자’와 ‘구조’를 동시에 담아내는 이론화
 - b) 방법론적 측면 - 사회연결망 분석(SNA)을 활용한 세계정치 ‘구조’의 가시화
 - c) 경험적-분석적 측면 - 동아시아 세계정치를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무엇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까? - 단순히 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자들이 부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-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연구의 가장 큰 과제
 - d) 실천 전략의 측면 -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한반도의 네트워크 전략?
 - ex) 예를 들어 최근 미국과 중국이 구축하는 양대 네트워크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네트워크 국가전략?

o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- 네트워크 이론의 세 갈래

- 1) 네트워크 조직이론(network organization theory): 네트워크 사회론, 거버넌스 이론
 - 네트워크를 하나의 ‘행위자’로서 보는 이론 진영
 -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이론에서 원용 - 이들 연구의 전제는, 네트워크 형태의 사회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지만, 새로운 정보시대의 경쟁 환경에서 요구되는 유연성, 적응성, 반응속도 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이 새로운 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
 - 사회학자인 마누엘 카스텔(Manuel Castells)의 일련의 저작은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

<그림-3> 통합 네트워크와 분절 네트워크, 그리고 구조적 공백



- 2) 사회-네트워크 이론(social-network theory): 사회연결망분석(SNA)
 - 네트워크를 하나의 ‘구조’로 보는 이론 진영
 - 사회학과 물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짐
 - 사회학과 인류학 및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소위 사회연결망분석(social network analysis, 이하 SNA)에서는 소시오그램(sociogram)이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각기 상이한 노드들이 맺는 연결망을 탐구
 - 특히 방법론적으로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링이나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연결망과 관련

된 데이터의 수집, 연결망의 전반적인 연결도, 호혜성과 상호성의 정도 등을 탐구하는 것이 특징

- 또는 구조적 공백과 중개자 등과 같은 개념을 탐구

3) 행위자-네트워크 이론(actor-network theory, ANT): 네트워킹 전략의 단계론

- 네트워크를 하나의 동태적 '과정'으로 보는 이론 진영
- 과학기술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원용
- ANT는 인간 및 비인간(non-human) 행위자들이 서로 이종(異種)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, 즉 ANT의 용어로는 '번역(translation)'의 과정을 탐구
- ANT에서 행위자란 노드와 같이 개체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,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,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

o 이상의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여 ... 기존의 '국제정치이론'을 넘어서 ... 어떻게 새로운 이론을 세울 것인가?

- 국제정치의 '국제(國際, inter-national)'에 시비결기 - 벤담(1789), 미쓰쿠리 린쇼(1873)
 - 주요 행위자로서의 국민국가라는 '노드(node)' 간의 정치 - 주류 국제정치이론 진영이 담고 서 있는 이론적 전제를 구성
- 21세기 세계정치는 이러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전제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?
 - 노드 행위자나 이들 간의 평면적 관계(즉 링크)와 그 합(合)이라는 맥락을 넘어서 이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전체의 '보이지 않는 구조'를 보아야
- 노드 행위자 자체도 그 내부와 외부에서 '네트워크'를 닮아가는 변화
- 게다가 이러한 행위자들이 벌이는 게임도 전통적인 '자원권력'의 게임을 넘어서는 구조권력의 진영을 넘나드는 게임이 벌어진다!
- 요약하면 21세기 세계정치는 '네트워크들 간의 정치(inter-network politics)' 또는 망제정치(網際政治)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?
-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?

o 이론적 플랫폼의 설정 - 기존 주류 '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'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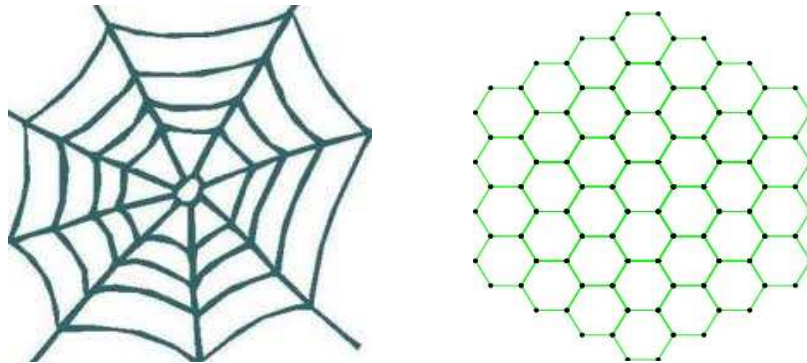
- 1) 권력추구 가정을 넘어서 '네트워크 권력'의 가정
 - 집합권력, 위치권력, 설계권력의 복합권력 게임으로 개념화하자
 - 2) 국가중심 가정을 넘어서 '네트워크 국가'의 가정
 - 기존의 국가 행위자가 새로이 부상하는 초국적 비국가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다
 - 3) 무정부질서(anarchy) 가정을 넘어서 '네트워크 질서(networkarchy)'의 가정
 - 기존 국제체제를 구성하던 단위인 국민국가가 변하고 있다면 ... 21세기 세계체제에 대한 개념화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? 위계질서(hierarchy)도 아니고 무정부상태도 아닌 중간 지대의 질서?
- 여기서 던져 보는 질문? “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현실주의자 아닌가? 여전히 권력과 국가를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질서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지 않은가? 이른바 '현실주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'을 지향하는 것인가?”

o 네트워크로 보는 21세기 세계정치 - 망제정치 - 동아시아에의 적용(1단계 3개년) - SSK 프로젝트

1) 동아시아 국가들의 네트워크 전략 분석 - 거미줄 치기 -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하는 ‘주변4망(網)의 세력망(network of power)’ 분석

- 미국의 군사변화와 네트워크 군사전략: 사회연결망 분석, 행위자-네트워크 이론
-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전략: 구조적 공백과 중개자 이론
- 미국과 중국의 FTA 전략: 사회연결망 분석
- 미국과 중국의 표준경쟁: 네트워크 권력과 행위자-네트워크 이론의 네트워킹 단계론
- 미국과 중국의 공공외교: 행위자-네트워크의 원용

<그림-4> 거미줄 치기 vs. 벌집 짓기





2) 초국적 비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분석 - 벌집 짓기 -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-비국가 행위자들의 복합 거버넌스 분석

- 사이버 안보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- 중국과 북한
- 금융 분야에서 나타나는 국가-비국가 행위자 - 신용평가기관의 네트워크
- 동북아 환경 협력 네트워크 - 황사대응체계
- 원자력 분야의 복합 네트워크 - 후쿠시마 원전사태
- 초국적 문화 네트워크와 문화국가의 역할 - 한류

3) 국가 vs. 비국가 행위자들의 망제정치 - 거미벌이나? 벌거미나? 동아시아 네트워크 질서의 성격 분석 - 동아시아 냉전질서,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이나 동아시아 공동체론 등을 넘어서

- 군사안보, 정치경제, 에너지, 환경, 기술지식, 문화소통의 동아시아 질서?
- 중국 vs. 인권 네트워크 - 국가의 인터넷 통제와 감시
- 지식네트워크와 글로벌 거버넌스 - 동아시아 정보격차와 국제협력
- 사이버 공간의 동아시아 민족주의: 한-중-일 네티즌들은 왜 서로 미워하는가?

<그림-5> 거미벌과 벌거미

거미벌(spider bee)	벌거미(bee spider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미 대륙에서 서식하는 벌 - 날개와 독침으로만 보면 꿀벌이지만 그 - 다리는 거미 모양을 하고 있음 - 게다가 거미줄을 치는 능력까지 보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적으로 습성은 거미 - 그 몸통의 색깔과 무늬가 꿀벌을 연상시키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
	

o 네트워크로 보는 동아시아와 한국 - 이론의 응용 - 동아시아 이론의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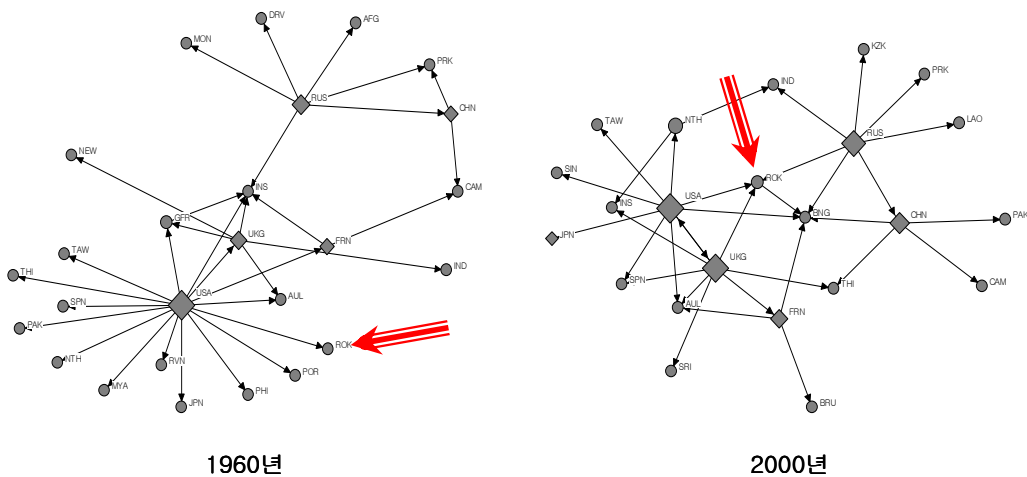
- 1) 동아시아 세력망 속의 중견국 역할 - 사회-네트워크 이론의 원용
-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구조? 신현실주의에서 말하는 구조
 - 네트워크 질서의 구조분석 - SNA를 사용하여

<그림-6> 동아시아 세력망의 구조분석

	군사	경제	지식
분포분석	군사비 지출	국내총생산 (GDP)	연구개발 (R&D)투자
흐름분석	무기이전 (무기)	무역 (상품)	유학생 (사람)
관계분석	군사동맹	FTA	인터넷 트래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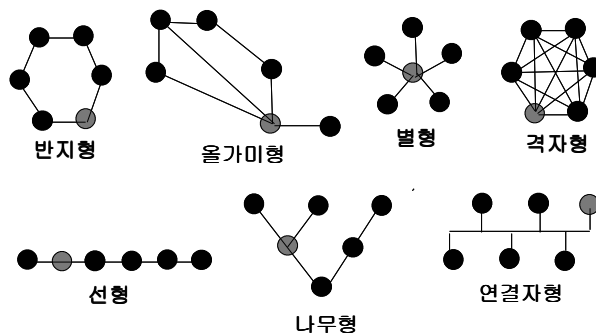
- 예를 들어 1960년과 2000년의 동아시아 무기이전의 네트워크를 다룬 <그림-7>을 보면 네트워크상에서 ‘위치’가 지니는 전략적 의미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줌
- <그림-7>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각각의 무기이전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‘위치’이다. 한국이라는 노드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네트워크상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.
- 실제로 1960년 미국과의 링크만 있던 시절과 2000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과도 링크가 있던 시절에 무기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선택지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.

<그림-7> 아시아의 무기이전 네트워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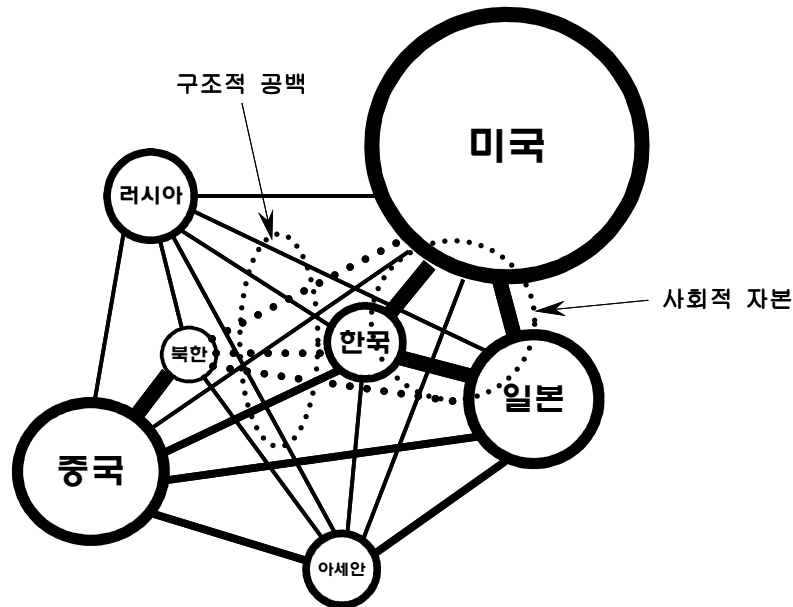
- 속성이 아니라 구조의 맥락에서 보는 중견국(middle power)의 개념 - 위치(position)이 중요하다 - 위치권력과 중개자의 역할 <그림-8>에서 여섯 행위자가 형성하는 구조의 패턴은 동아시아에서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와 남북한이 벌이는 네트워크 게임의 양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--> 만약에 회색 노드를 한국에 비유한다면?

<그림-8> 네트워크 지형도: 위치가 중요하다!



- 구조적 공백, 문화적 공백, 착취혈(구조적 블랙홀), 그리고 사회적 자본 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동아시아의 세력망을 이해하면, 무언가 새로운 것이 보이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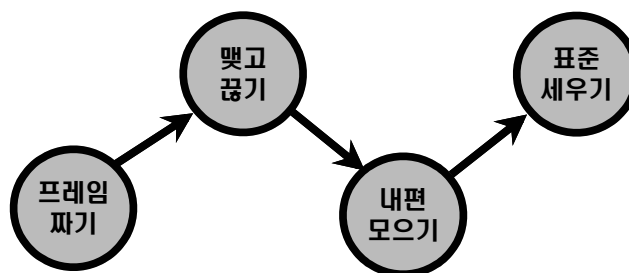
<그림-9>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



2)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- 행위자-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- 번역의 4단계

- 프레임 짜기: 상황지성, 위치지성, 틈새지성 - OPP 설정, 설계권력
- 끊고 맺기: 연결망 외교와 중개외교 - 위치권력, 중개권력
- 내편 모으기: 협업외교와 매력외교 - 집합권력
- 표준 세우기: 규범외교, 틈새외교, 접맥외교 - 설계권력

<그림-10>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4단계



3)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와 한반도 통일 - 네트워크 조직이론

- 동아시아형 네트워크 국가? 일본, 중국(베이징 컨센서스)
-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?: 서울 컨센서스 - IT모델, 문화국가
- 네트워크로 보는 한반도 통일론: 남북한 통합모델 - 연합, 연방, 민족공동체
- 동아시아 질서구상: 동북아 중심국가론 비판, 네트워크 질서구상